『영주어문』 제19집(2010. 2) 5-44쪽

해방기 인천의 지역문학과 매체

이 희 환*

차 례

1. 서론
2. 해방기 인천의 문단과 조직
 2.1. 해방 직후, 인천의 문화단체
 2.2. 인천문학동맹, 조선문학가동맹의 지부
 2.3. 분단의 가시화와 문화의 전변
3. 해방기 인천의 문학매체와 작품
 3.1. 해방기 인천의 문학동인지
 3.2. 『대중일보』 소재의 문학작품들
4. 결론에 대신하여

1. 서론

이글은 한국 근대문학사 연구의 일환으로 해방기 인천 지역의 문학사를 복원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한국근대문학사에 있어서 지역문학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아가 각 지역문학사가 존재한다면 그것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이는 한국문학사 기술에 있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대 초창기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부터 모든 것이 서울-중앙으로 집중되어 전개되어왔고 문학사 기술조차 그러한 관행을 좇았던 점을 돌이켜볼 때 이와 같은 질문들은 피치 못하게 직면해야 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연전에 인천 지역의 근대연극사를 정리하면서 한국근대연극사 연구에서 있어 지역연극사 연구가 갖는 의미를 살펴본 바가 있다. 한국근대연극사라는 문예영역의 총체적 장(場)에서 구체적 특수성의 장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각 지역의 연극사이다. 지역마다 다른 특수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전개된 각 지역의 연극사는 한국연극사의 구체적 실체인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 연극사의 중층적 총합은 한극연극사의 실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두께와 내용을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연극사에 대한 연구는 동시에 기왕의 서울-중앙 중심의 연극사 기술의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도가 될 수 있고, 근대적 생활세계의 구체적 변화양상까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연극사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로 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간 수직적 고찰에만 집중해온 한국근대연극사를 수평적 고찰을 통해 보완하여 보다 풍부하면서도 다채로운 근대연극사 기술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1]

한국연극사 연구에 있어 지역연극사 연구가 갖는 이와 같은 의미는 그대로 한국문학사에서 지역문학사 연구가 갖는 의미로 된다. 각 지역문학사가 전개되는 장은 한국문학사라는 더 큰 장과 긴밀하게 호응하면서도 지역의 독자적인 문학예술의 발화와 수용을 통해서 한국문화예술사 전체의 장과 길항하는 살아있는 예술의 현장이다. 각 지역마다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지역문화예술의 전개과정은 곧 한국문화예술사가 전개된 구체적 실체이기에, 각 지역문화예술사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해석을 통해서 한국문학사의 내용과 두께도 더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문학사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그동안 지나치게 서

---

1) 자세한 논의는 이희환, 「인천 근대연극사 연구 1883-1950」, 『인천학연구』 5호, 인천학연구원, 2006.

울 중심의 보편적 추상적 논의에 치중하거나 '순예술' 혹은 '순문학' 중심으로 다분히 서구적 관점 아래 연구되었던 한국문화예술사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성찰적 시각을 제공해줄 것이다. 서울에서 활동한 명망 높은 예술가, 문학가들과 그들의 작품만으로 앙상하게 기록된 문화예술사를 극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토착, 형성된 살아있는 예술들을 지역문화예술사, 지역문학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각 지역에서 수행했던 역할과 근대적 생활세계의 변화양상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문화예술사 연구는 기왕의 서울-중앙 중심으로 기술되어 왔던 연구의 관행을 극복할 새로운 연구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지역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소우주이다. 특히나 오늘날의 지역은 그 어느 곳이든 격절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는 나라 전체, 전인류적 차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딛고 사는 고장의 삶을 자기 삶의 일부로 접수하고 그 공간속으로 침투해 들어감으로써 지역적 실천 속에 전지국적 사고를 벼리는"[2] 창조적 응전이 전개될 수 있는 역동적인 장이 바로 지역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역은 중심부의 새로운 체제와 시스템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낡은 질서와의 갈등과 투쟁이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공간적 후진성과 보수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문학에 대한 연구는 늘 보편과 특수의 역동적 긴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찍이 임화가 「문학상의 지방주의 문제」라는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더 이상 지역문학과 그 연구는 향토주의에 사로잡힌 '시골뜨기문학'이 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서울 것들 빰치게 흉내 내는 '깍쟁이문학'을 전범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3]

지역문학 연구가 갖는 일반적 의미가 이러할진대, 해방기의 각 지역의 문학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특히 어떤 점에 착안해서 연구할 것인가 하

2) 최원식, 「지방을 보는 눈」, 『황해에 부는 바람』, 인천: 다인아트, 2000, 39쪽.
3) 임 화, 「문학상의 지방주의 문제」, 『조광』 1936. 10.

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모든 시기의 지역문학사가 한국문학사 연구의 구체성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매 역사적 시기마다 지역문학이 존재하는 양태와 특성이 다를진대, 해방기의 시대적 특성에 주목하면서 지역문학의 존재양태와 그 특성을 한국문학사 전반과 견주는 작업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해방기 지역문학사 연구는 한국근대사가 분단과 전쟁으로 인하여 남·북의 문학으로 분화되는 기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반국적(半國的)인 '국민문학'의 형성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헤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하지만 현재 이 시기 지역문학사에 대한 연구는 전체적 연관을 상실한 채 고립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방기 한국문학사 연구의 전반적 경향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그간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아쉬움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해방기 문학사의 기술이 주도 서울 중심의 전국적 문학단체나 작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되어 왔다는 점이고, 둘째, 남·북의 문학적 상황을 아우르는 연구의 거시적 시각을 견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기초적인 텍스트와 자료의 빈곤 상태에서 1990년대 초반의 일시적 연구열이 식은 이후 보다 진전된 연구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15 해방과 함께 시작되어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마감된 해방기는 조선이 비로소 자주적인 근대국민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역사적 과제를 무겁게 부여받은 시기였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을 두 축으로 한 동·서 냉전체제가 자리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한국전쟁(1950-1953)을 경과하면서 세계 냉전체제의 하위체계로서 한반도에서의 고유한 분단체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역사적 시기이다. 그 결과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남·북 정권에 의해 가장 극단적인 두 이념을 표방한 반쪽의 국가 만들기(nation-building) 프로젝트가 폭력적인 형태로 강제된 시기였다.[4] 이후의 불안정한 분단 상황 아래서 두 정권은 자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기중심적 국가이념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면서 상대 정권에

4) 최장집, 「국민국가의 형성과 근대화의 문제 1945-1961」,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6 참조.

대한 극단적 대결의식의 조장을 통해 체제의 안정을 도모해왔다.[5] 그 결과 반국적 국가이념은 분단체제 아래에서 매우 특수하면서도 일상적인 사고체계로 정착되었다. 분단체제 아래에서의 '남한중심주의(南韓中心主義)' 내지는 이에 짝하는 '북한중심주의'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두 사회의 모든 부면에서 철저하게 관철되었던 것이다.[6]

오늘날 우리가 처한 역사적 현실은 아직도 온전한 의미의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채 해방기가 형성해놓은 역사의 자장 아래 놓여 있다. 민족모순이 여전히 우리의 근대성 쟁취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의 문학적 노력을 '한국문학'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제대로 조망하고 확인할 수 없는 불구적 상황인 것이다.[7] 따라서 분단체제 극복을 지향하는 '민족문학' 대 분단체제의 반국적인 한계에 갇힌 관제 '국민문학'의 이분법을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남한의 반국적 '국민문학'이 형성되는 맥락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8] 이를 위해서도 각 지역에서 전개된 해방기 지역문학사의 전개과정 및 굴절과정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요구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인천 지역문학의 전개양상을 조직과

5) 김정훈은 분단 이후 지배담론으로서의 민족주의가 남과 북에 공히 동질이형성을 띠고 전개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정훈, 「남북한 지배담론의 민족주의의 비교연구—역사적 전개와 동질이형성」,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99 참조.

6) 김재용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자기중심의 통일주의" 혹은 "남북 중심주의"라고 지칭하면서, 남쪽의 남한-서울 중심주의에 대하여 북한은 북한-평양 중심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고착시키는 사고방식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김재용, 「분단구조하의 남북 중심주의와 민족문학의 전망」, 『20세기 한국문학의 반성과 쟁점』, 소명출판, 1999, 91-101쪽 참조.

7) 1990년대 중반, 백낙청이 "통일이 일회적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인 과정이며 이것이 분단'체제'의 극복 과정일 때에만 '통일다운 통일'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이제 "'민족 전체의 민족문학' 대 '분단국가의 국민문학'이라는 이분법도 수정되어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통일시대 우리 문학의 명명으로 '한국문학'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백낙청, 「'통일시대'의 한국문학」, 『한국현대문학 50년』, 민음사, 1995, 614-615쪽.

8) 보다 자세한 검토는 이희환, 「김동리와 남한 '국민문학'의 형성」(인하대 박사논문, 2007) 서론 참조.

매체를 중심으로 문학사회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반국적 '국민문학'이 형성되는 전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의 문학적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제한된 지면과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우선 1945년에서 1950년까지, 즉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의 시기를 '해방기'라 구획하여 인천 지역문학과 매체의 존재양태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해방기 인천의 문단과 조직

2.1. 해방 직후, 인천의 문화단체

1945년 8·15가 도둑 같이 찾아들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은 일제하의 오랜 억압과 질곡으로부터 해방된 감격과 환희가 일렁였다. 이에 따라 사회 각 부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하였으며 초기의 흐름은 좌파계열이 주도하였다. 문화예술계의 흐름도 이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해방 이후 최초로 출범한 문화단체는 1945년 8월 16일 결성된 조선문학건설본부였다. 조선문학건설본부를 모태로 하여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이하 '문건')가 연이어 발족되었다. '문건'은 문학, 미술, 음악 등의 각 부문별 조직이 결합된 중앙협의회로 기능하였다. 카프 해소파인 임화, 김남천, 이원조 등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카프 비해소파인 이기영, 한설야 등을 중심으로 하여 9월 30일엔 보다 극좌적인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이하 '예맹')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분화했던 좌파 진영은 1945년 12월 13일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과 조선문학건설본부가 통합하여 '조선문학동맹'을 결성하고 이듬해 2월 8·9일 전국문학자대회를 거치면서 '조선문학가동맹'으로 확대 재편하였다. 연이어 '예맹'과 '문건'이 1946년 2월 24일 정식으로 통합하여 '조선문화단체총연맹'(이하 '문련')을 발족시켰다.

좌파 문단의 이러한 움직임에 뒤이어 우파 계열에서는 1945년 9월 27일

박종화, 이헌구, 김광섭 등을 중심으로 '중앙문화협회'를 결성하였으나 그리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1946년 3월 13일에는 예술, 학술, 언론, 체육 등을 망라하는 '조선문필가협회'를 결성했다. 그러나 이 또한 좌파 조직에 비해 소극적인 활동에 그쳤다. 이와 같은 우파 기성문인들의 소극적인 활동을 비판하면서 1946년 4월 4일 김동리, 조연현, 유치환, 조지훈 등 우파의 젊은 '순수문학파'들은 별도로 '조선청년문학가협회'를 발족시켰다. 이후 청년문학가협회가 중심이 된 29개의 우파 문화단체는 1947년 2월 12일에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문총')을 결성하였다. 이후 해방기의 문화계는 좌우익의 치열한 이념대립으로 반목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앙의 이러한 양상은 지역에서는 다소 다르게 전개되었다. 특히 서울에 인접한 인천지역의 상황은 기본적인 좌·우파 간의 갈등은 비슷하게 노정되었지만, 그것이 조직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은 다소 달랐다.

해방이 되자마자 인천지역도 젊은 예술가들과 문화인들이 모여들어 새로운 민족문화, 지역문화 건설을 둘러싼 열기로 충만하였다. 해방 직후 인천에서 가장 먼저 결성된 문화단체는 인천신문화협회(仁川新文化協會)였다. 당시 인천음악협회의 지국장이었던 이약슬(李約瑟)의 기록에 따르면, 1945년 12월 발족한 인천문학동맹의 전신으로 인천신문화협회(仁川新文化協會)가 있었다고 한다. 1945년 8월 16일 지역의 30여 명의 문화인들이 모여 발족한 신문화협회는 "政治 經濟 文化의 廣範圍에 亘한 協議機關으로 地方의 特殊性과 過渡期 知識人의 集團으로 複雜한 性格"을 갖고 출범하였다.[9]

인천신문화협회는 1945년 10월 28-29 양일간 '예맹' 소속의 문화인들을 초빙하여 시내 애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예술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講演　　한 효, 박아지

9) 李約瑟, 「反動派와 싸우는 仁川의 文化運動」, 『文化通信』 2권 1호, 조선정판사, 1946. 1, 16쪽.

詩朗談　박세영, 박석정
漫談　신불출
踊劇　연극동맹원 일동
演劇　연극동맹원 일동[10]

강연자로 참석한 한효나 박아지, 시낭담에 참석한 박세영, 박석정 등이 모두 '프로문맹' 계열의 문인이라는 점에서 인천신문화협회의 초기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1945년 12월 1일에 신문화협회는 한국민주당 인천지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영회 발기단 명단에 신문화협회가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기도 하였다. "우리 회에서는 환영회 발기단체로 가입한 사실이 전연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한민당의 발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11] 인천신문화협회는 그러나 구성원의 복잡성과 노선의 차이, 그리고 우익의 발호로 인하여 많은 회원이 떨어져나가고 또 일부는 별도로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인천문학동맹으로 흡수되었다.[12]

『대중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인천신문화협회의 후신인 인천문학동맹은 인천신문화협회 회원에 더하여 문예탑사(文藝塔社, 인천청년문학동호회, 주간 신영순)와 동화세계사(童話世界社, 주간 우봉준)가 발전적으로 해체, 합동하여 결성된 것이며, 기왕에 간행되어 왔던 두 잡지도 휴간하고 새로 인천문학동맹의 기관지 『인민문학』을 발간하기로 했다고 한다.[13] 이러한 보도로 보아 해방 직후부터 인천에는 인천청년문학동호회가 신영순을 중심으로 『문예탑』이라는 문예지와, 식민지시대 『아이생활』을 편집했던 우봉준의 주도 아래 『동화세계』라는 아동잡지가 이미 발간되었던 것 같다.

---

10) 『대중일보』 1945. 10. 26.
11) 「가입사실 없다, 신문화협회서 성명」, 『대중일보』 1945. 12. 1.
12) 이하 해방기 인천의 문화적 상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는 윤영천, 「배인철의 흑인시에 대하여」(『창작과비평』 1989년 봄호), 207-8쪽 참조.
13) 「문학동맹결성, 인천문화단체 통합」, 『대중일보』 1945. 12. 21.

그러나 이 두 잡지는 그 실물을 확인할 수 없다.

인천신문화협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해방 직후 인천의 문화계 상황은 1945년 10월 22일에 시인 배인철(裵仁哲)을 중심으로 한 인천신예술가협회(仁川新藝術家協會)가 결성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된다. 신예술가협회도 신문화협회와 마찬가지로 문학, 미술, 연극 등 여러 예술분야를 아우르는 문화단체였는데, 신문화협회보다는 좀 더 대중적인 문화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 국제문화의 교류도시로서 앞날이 총망되는 인천항에 신예술가협회가 탄생되었다. 이 협회에서는 기관지로 문예, 미술, 연극, 음악 등 예술부문의 지도향상을 돕기 위하여 『신예술』이란 문예, 문화 종합잡지를 발행할 터이라 하며 수일 내로 본보 후원 아래 미술전람을 개최할 터인데, 우선 첫 사업으로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의장 임화 씨를 비롯하여 각 부문의 책임자를 초빙하여 문화 강연회를 수일 내로 인천 영화극장에서 개최하리라는데 동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 ▷ 대표자 : 배인철, 김진태, 김영건, 김충국, 김종식, 오장환, 황규태, 김만형, 최재덕, 이혁주, 서정주, 함세덕, 신두영, 노상덕, 레이몬 푸렌, 린우드 E. 브라운, 한피득
>
> ▷ 사무소 : 인천부 산수정 1정목 7번지[14]

신예시인 배인철이 인천시내에서 제일 큰 요리점이었던 긴쓰이[銀水]를 접수하여 <예술의 집>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활동하기 시작한 인천신예술가협회에는 인천 출신의 문화예술인인 배인철, 조규봉, 함세덕 등에 더하여 화가 최재덕, 김만형, 시인 서정주, 오장환, 평론가 김영건 등의 문화인뿐만 아니라 인천 월미도에 소재했던 미군부대원이었던 흑인 린우드 E. 브라운 등도 참여하고 있다. 문화예술 종합단체를 표방한 인천신예술가협회는 문화예술 종합지 『신예술』의 발간을 준비하는 등 발족 직후부터 매

14) 「신예술가협회 제물포에 탄생, 잡지 『신예술』 발간 예정」, 『대중일보』 1945. 10. 22.

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발족 당시 예고하였던 문화강연회를 10월 27일에 인천시 인민위원회의 후원 아래 인천 영화극장에서 아래와 같이 대대적으로 개최하였다.

> 신예술가협회에서는 본사와 인천시 인민위원회 후원 아래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간부를 초빙하여 오늘 27일 오후 6시부터 인천 영화극장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는데 연사 여러분이 조선 문화해방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과 투쟁을 겪은 조선문화사의 기록될 만한 인사들이고 인천서 처음 들을 수 있는 강연회인 만치 기대되는 바 크다. 연제와 연사는 다음과 같다.
>
> 1. 문화운동의 당면문제 임 화
> 2. 조선미술의 세계적 지위 김조경
> 3. 문학의 교육적 임무 김남천
> 4. 조선 문예의 기본방향 이원조
> 5. 인민 연극의 과제 안영일
> 6. 제목 미정(영화에 대하여) 김정혁[15]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연사들의 면면이 대개 '문건' 계열의 인물들인데, 이를 통해 신예술가협회가 확실히 '문건' 계열의 문예운동노선을 채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신문화협회는 시낭송을 비롯한 문학 활동뿐만 아니라 신예술가협회는 미술전람회 활동에도 노력을 경주하였다. 1945년 11월 2-3일 양일간 제물포금융조합 사무실에서 동양화, 서양화, 조각, 판화, 미술, 공예, 창작, 도안, 무대미술, 사진미술 등에 걸쳐 미술작품 공모를 진행하였다.[16] 이때 공모한 작품을 가지고 11월 5일부터 인천금융조합 갤러리에서 제1회 미술전람회를 개최하였다. 출품작으로 제1부 동양화 3점, 제2부 서양화가 31점, 제3부 조각이 5점, 제4부로 공예품이 11점이 전시되었다. 『대중일보』는 이 전시회를 "문화도시 인천의 신면목"이라는 제하에 보도하면서 특히 "조선이 낳은 젊은 건축학자이며 미술가인 金忠

15) 『대중일보』 1945. 10. 27.
16) 『대중일보』 1945. 10. 22.

國 군의 건축도안 <해방탑>"을 세계적 레벨의 작품이라고 격찬하였다. "이 도안은 위치를 문학산으로 하여 사람키의 500배의 민족 해방탑을 세우려는 도안으로 기초를 돌로 쌓고 탑체를 기와로 쌓아 올리자는 계획과 상징으로 빚어진 것인데 탑 우에는 세 곳에 봉화대가 있어 해마다 한번씩 8월 15일마다 기름불을 질러 조선해방을 영원히 기념하자는 올림픽 대회의 성화와 같은 것"이라고 상찬하였다.[17]

인천신예술가협회와는 별도로 <예술가의 집>이라는 문화공간은 별도로 운영되어 1946년 5월에 재개관하였던 것 같다. <예술가의 집> 건물은 개항기에 건축되었던 영국영사관 자리에 들어선 것으로 예술 각 분야에 걸쳐 화실, 조각실, 공장실, 간단한 도서실, 담화실 등을 설치하여 늦어도 5월 상순에는 개관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18]

2.2. 인천문학동맹, 조선문학가동맹의 지부

인천신문화협회와 인천신예술가협회로 분화되었던 해방 직후 인천의 문예조직은 중앙의 문학조직이 통합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통합을 모색하게 된다. 이리하여 발족한 것이 인천문학동맹이다. 인천문학동맹의 통합을 보도한 『대중일보』는 "중앙에서 '예맹'과 '문건'이 합동됨을 계기로 인천에서도 각문화 단체가 통합하여 인천문학동맹을 결성하였다"고 저간의 사정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945년 12월 13일을 기해 '문건'과 '프로문맹'이 '조선문학동맹'으로 통합되자 이를 위해 '문건' 계열의 인천신예술가협회와 '문맹' 노선의 인천신문화협회의 양측이 통합을 결의하고 12월 18일 문인 30여 명이 중앙신문사 인천지부 사무실에 모여 인천문학동맹으로 통합하는 결성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선임된 위원은 아래와 같다.

◎ 위원장 : 엄흥섭

17) 『대중일보』 1945. 11. 11.
18) 『중외신보』 1946. 4. 26./ 『조선인민보』 1946. 4. 27.

부위원장 : 윤기홍
서기장 : 김차영
◎ 집행위원 : 한재성, 신영순, 김수근, 우봉준, 김도인, 송종호
◎ 각부위원 : 소설희곡부—김도인, 신영순, 송종호 / 평론부—한재성 / 시부—김수근 / 외국문학부—김동표 / 아동문학부—우봉준
◎ 편집위원 : 엄흥섭, 윤기홍, 김차영, 김도인, 신영순, 한재성, 김수근, 김동표, 우봉준, 송종호[19]

위원장인 엄흥섭은 소설가로 그 당시 인천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대중일보』의 편집국장이었다. 그는 1920년대 후반부터 인천에서 진우촌이 주관했던 순문예동인지 『습작시대』에 관계하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었다. 그가 당시 '프로문맹'의 중앙집행위원이었기에 인천문학동맹의 위원장이 된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20] 해방기에 엄흥섭은 과거 자신이 편집동인으로 잠시 참여한 바 있던 소년잡지 『별나라』의 복간 작업에 송영, 박아지, 박세영, 김도인 등과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21]

인천문학동맹의 부위원장 윤기홍(尹基洪)은 인천 대부도 출신으로 『대중일보』에 소설 「초설(初雪)」 등 몇 편의 작품을 발표한 작가이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인천시 인민위원회 문화부장을 역임하였다. 서기장인 시인 김차영(金次榮)은 그 당시 『대중일보』의 기자였다. 그는 경기도 강화 출생으로 일본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조광』지에 시를 투고하는 등 해방 이전까지 5, 6편의 시 작품을 발표하였다. 인천지역의 『문예탑』 『시와산문』 동인회에도 참가하였고 훗날 박인환, 김경린과 함께 모더니즘 시운동에도 가담한 바 있다. 집행위원 신영순과 우봉준은 각기 『문예탑』과 『동화세계』를 발간했던 이들이고, 송종호(宋宗鎬)는 덕적도 출

19) 「인천 문화단체 통합, 문학동맹 결성」, 『대중일보』 1945. 12. 21. / 『신조선보』 1945. 12. 22.
20) 엄흥섭과 인천에서의 문화운동에 대해서는 졸고, 「엄흥섭과 인천에서의 문화운동」, 『인천아, 너는 엇더한 도시?—근대도시 인천의 역사·문화·공간』, 역락, 2008 참조.
21) 「소년잡지 『별나라』 속간」, 『대중일보』 1945. 11. 19.

신으로 소설 「그물 소동」을 『신천지』 1949년 5월호에 발표한 신진작가이다. 한재성과 김수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이들 인천문학동맹의 간부 이외에 특기할만한 인물로 집행위원 김도인이 있다. 김도인은 1937년 1월에 지역 종합지 『월미(月尾)』를 창간했던 인물이다. 그는 식민지시대 『동아일보』 인천지국의 기자 출신으로 문학과 연극 활동에도 종사한 바 있다. 1927년 2월 인천에서 진우촌의 주도에 의해 창간되었던 『습작시대』에도 동인으로 참여하였고, 또 우촌과 함께 정암, 원우전, 고일 등이 조직하였던 극단 <칠면구락부>에도 참여한 바 있다. 김도인은 『습작시대』 3호(1927. 4)에 「나의 결투장」이란 글을 통해서 팔봉 김기진을 비판한 바 있다. 팔봉이 문학적 세련 없이 문학의 공리성만을 추구하는 지역 문학인들을 비판한 데 대하여 격렬한 항의를 제출한 것이다. 김도인이 강조한 것은 오히려 문학적 세련성에 앞서 사상과 예술관의 확정문제였다. 그 뒤 김도인은 오랫동안 재직하던 『동아일보』 기자직을 그만 두고 1935년에는 강화도 본섬에서 떨어진 길상면 동검도에서 사립학교를 설치하고 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22] 이로 보면 김도인은 줄곧 문학 혹은 문화의 지역적 실천성을 자각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해방 후 김도인은 『월미』의 복간을 추진했다. 김도인은 해방 직후 인천신문기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대중일보』에는 장편을 연재하기도 하였다.[23] 이러한 행적으로 볼 때 김도인은 줄곧 문학 혹은 문화를 통해서 지역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한편 인천문학동맹의 조직에서 특기할 것은 해방 직후의 지역문학조직으로서는 두드러지게 소설, 시, 평론, 외국문학, 아동문학 등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과,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족 즉시 기관지 편집을 도모했다는 점이다.

親愛하는 우리 兄弟姉妹여. 오랜 屈辱의 날 壓迫과 搾取의 긴 날은 끝나

22) 「동아일보」, 1935. 2. 24

23) 김도인에 대해서는 졸고, 「「월미」와 김도인」, 『인천문화를 찾아서』, 인천: 다인아트, 2003 참조.

고 自由와 解放의 날은 왔다. 그러나 一方으로 우리 同胞의 살과 뼈 속에는 아직도 그 惡毒한 鎖犯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며 他方으론 日本 帝國主義의 走狗輩와 民族叛逆者들이 가진 謀略과 陰謀는 民族統一과 自主獨立을 遲延시키고 있다. 우리들 文化에 從事하는 者 特히 文學에 從事하는 者로서 이 過渡期적인 政治形態에 處하여 우리들이 가진바 最先의 情熱을 태울 때임은 勿論이고 36年間 歪曲된 藝術運動이 死地를 벗어나 새로운 常識과 새로운 樣式을 探究함은 우리들의 義務일 것이다. 이 任務는 全朝鮮 文化從事者 及 藝術家의 一致團結의 土臺에서만 비로소 達成할 수 있는 까닭에 地方에 있는 우리 文學人들도 團結하여 中央과 有機的인 連絡을 緊密히 取함으로써 朝鮮의 文化運動은 統轄的으로 完遂될 것이다. 于先 現段階의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現實을 正確히 把握한 進步的 民族文學의 建設함을 通하여 新生될 國家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世界史的인 文化理念의 一環으로서의 우리들의 任務는 實로 莫大한 바가 있다. 이에 仁川에 있는 文學人들은 一致協力하여 우리의 雙肩에 부과된 使命을 爲해 果敢히 싸워나갈 것을 宣言한다.

—1945년 12월 18일, 仁川文學同盟[24]

위 글은 1945년 12월 18일 결성된 인천문학동맹의 출범 선언문이다. 해방을 맞은 문학인들의 감격과 함께 "民族統一과 自主獨立"을 통한 자주적 근대국가 건설의 사명감을 뚜렷하게 자각하고 있다. 이를 위한 문학적 지향으로 "進步的 民族文學의 建設을 通하야 新生될 國家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조직적으로는 "中央과 有機的인 連絡을 緊密히 取함으로써 朝鮮의 文化運動은 統轄的으로 完遂"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보다 선명히 드러낸 강령에서 인천문학동맹은 "1. 日本 帝國主義의 掃蕩, 2. 國粹主義의 排擊, 3. 封建人憲 殘滓의 掃蕩, 4. 進步的 民族文學의 建設, 5. 朝鮮文學의 國際文學과의 提携"를 내세웠다. 이는 중앙의 전국적 조직이 내건 강령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지역적 실천을 위한 구체적 강령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한편 신문화협회와 신예술가협회의 일부가 통합하여 단일 조직을 형성

24) 「인천문학동맹 총회」, 『대중일보』 1945. 12. 23.

한 문학 부문과 마찬가지로, 타 분야의 예술가들은 각 분야별로 통합조직을 결성하였다. 신문지상에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직으로는 인천음악동맹[25]와 인천미술동맹,[26] 인천연극동맹[27]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인천음악동맹은 인천문학동맹과 함께 비교적 활발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5년 8월 말에 인천음악협회로 발족하였고 1945년 9월 30일부터 동포구호기금조성음악회를 개최[28]하는 한편, 1945년 11월에는 최성진 씨를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지부를 결성코자 11월 4일부터 인천에서 음악콩쿠르를 개최하여 프로음악동맹 본부에서 심사원으로 윤기선, 정회석, 신막 씨 등을 초빙하기도 하였으며,[29] 그 결과 11월 10일 정식으로 지부로 승인을 받았다. 1946년 2월에는 3·1운동 기념행사를 앞두고 음악을 대중적으로 보급코자 19일부터 18명의 음악동맹원이 시내 30개 공장을 순회하며 노래를 지도하기도 하였고,[30] 1947년 <3·1기념 종합예술제>에도 적극 참여한 바 있다.

해방 직후 좌파 지역문화운동의 초기양상을 잘 보여주는 인천지역의 이러한 문화운동의 흐름은 그렇다면 중앙 혹은 타지역과는 어떠한 연관을 갖고 전개되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타지역의 문예조직 양상을 함께 비교·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각 지역의 연구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25) 인천음악협회의 인천지국장인 이약슬은 "인천음악협회(조선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 인천지부)"는 인천신문화협회의 발족 후인 1945년 8월 말에 발족한 신문화협회의 방계단체로, 11월 10일 조선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의 지부로 정식승인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약슬, 앞의 글, 17쪽.

26) 인천미술동맹은 인천문학동맹, 인천연극동맹과 함께 <3·1기념 종합예술제>를 대대적으로 준비하였다가 미군 특무기관에 의해 강제 중지된 바 있다. 『대중일보』 1947년 2월 16일자에는 "인천미술동인회", 3월 18일자에는 "인천미술동맹"으로 보도되었는데 같은 단체로 짐작된다.

27) 인천아동극연구회에서 인천연극동맹과 중앙신문 인천지구의 후원 아래 인형극을 시연하고자 준비 중이며 준비위원으로 김동표, 박수득 씨가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로 보아 인천연극동맹은 개별 연구단체의 상위 통합단체임을 짐작할 수 있다. 『중앙신문』 1946. 2. 16.

28) 『조선인민보』 1945. 9. 23.

29) 『중앙신문』 1945. 11. 16.

30) 『중앙신문』 1946. 2. 23.

현재로서는 비교·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중앙의 문예조직인 '문맹'이나 '문련'과의 관련양상에 대해서는 약간의 참조할 만한 자료가 남아 있다. 1946년 2월 8·9일 경성 YMCA에서 전국문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족한 조선문학가동맹이 지방에 지부를 조직한 것은 발족 2개월이 지난 1946년 7월의 일이다. 문학가동맹의 기관지 『문학』 창간호에는 「지방조직에 대하여」라는 제하에 제3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내용이 발표되었다.

1946년 2월 8·9일 조선문학가동맹이 발족 당시에 마련한 규약 제12조에 지방조직에 대하여 "본동맹은 5인 이상의 맹원이 거주하는 도, 부에 지부를 기타 상당함을 인정되는 지방 혹은 지역에 맹우회를 置하고 각기 直上의 지부 또는 본동맹에 연계함. 지부 및 맹우회에 관한 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 이를 별정함"[31]이라고 규정해놓았는데, 지부 및 맹우회에 대한 세부 규정을 1946년 7월에 발표한 것이다. 10개 조항의 지부에 대한 규약 및 10개 조로 된 「조선문학가동맹 '何何'맹우회 규약준칙」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마저도 "規約 第12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左의 臨時措置를 할 수 있음"[32]이라 하여 여전히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준비를 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드러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지부는 강령, 규약을 갖추고 지역의 맹원 2인 이상의 의해 조직되며 반드시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완전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부에 대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46년 8월 10일 서울 시천교당에서 서울시지부가 결성되었다.[33] 조선문학가동맹 서울지부는 문학가동맹 제8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호응하여 1946년 11월 23일 긴급집행위원회를 열고 위원보선 및 서기국 부서개편을 단행하면서 특히 문학대중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전개하기도 하였다.[34] 한

31) 조선문학가동맹 엮음, 『건설기의 조선문학』, 최원식 해제, 온누리, 1988, 188쪽.
32) 『文學』 창간호, 조선문학가동맹, 1946. 7. 15, 184쪽.
33) 「문학가동맹서울지부, 來十日에 결성대회」, 『현대일보』 1946. 8. 8. ; 「문학가동맹 서울시지부, 오늘 시천교당서 결성」, 『중외신보』 1946. 8. 10.
34) 「문학가동맹 서울지부, 각부서를 확대강화!」, 『日刊藝術通信』 1946. 11. 28.

편, 해방 직후 개성지역에서는 중앙의 흐름에 발맞춰 '개성문화건설협의회'가 조직되어 문학가동맹 개성지부와 함께 각종 강연회를 비롯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하나 이후의 활동을 살펴볼 수 없었다.[35]

> 이제 이와 가치 朝鮮民主主義 國家建設의 絶大한 推進力이 되어잇는 南朝鮮의 藝術運動과 文化運動은 다시 各 地方으로 擴散하야 名實이 相半한 人民의 藝術과 文化를 建設할 氣運이 濃厚해진 것은 참으로 우리가 慶賀해마지 아니하는 바이다. 우선 各道에 잇서서 朝鮮文化團體總聯盟의 支部로서 江原道文化人聯盟, 慶北文化聯盟, 慶南文化聯盟, 全北文化聯盟, 全南文化聯盟이 各其 結成되었다는 報道가 最近에 連續하여 들어왔다. 그리고 朝鮮文化團體總聯盟의 傘下團體로 서울시에는 이미 그 支部들이 結成된 지 오래고 仁川, 開城, 水原, 春川, 大田, 釜山, 木浦, 安城과 가튼 主要한 都市에 있는 文學, 音樂, 演劇 등 各種 文化團體도 中央에 잇는 朝鮮文化團體總聯盟이나 그 傘下團體와는 不絶한 有機的인 連絡을 갓고 잇다.[36]

위의 글은 『문화일보』의 사설이거니와 1947년 3월의 시점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문련'의 지방조직화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1946년의 미숙한 지방조직에 비할 때 1947년에 이르러 비로소 '문련'을 중심으로 한 지방조직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날 확대 개편된 문학가동맹 서울지부의 집행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집행위원 - 염상섭, 홍효민, 강형구, 이병기, 조남령, 이주홍, 임선규
2. 개편된 서기국 부서 - 총무부: 강형구(부장), 임원호/ 조직부: 이용악(부장), 박영준, 이병철/ 선전부: 김용호(부장), 김철수/ 사업부: 김상원(부장), 오장환, 김광현/ 출판부: 지봉문(부장), 정원○, 홍구
3. 문학대중화운동위원회 - 김영석(위원장), 강형구, 김남천, 김광균, 김동석, 김만선, 김용호, 김철수, 김광현, 김기림, 나선영, 노천명, 박노갑, 박찬모, 변두갑, 배호, 설정식, 안회남, 오장환, 윤태웅, 이명선, 이봉구, 이용악, 이병철, 임원호, 조허림, 조벽암, 조남령, 함세덕, 현덕, 홍구, 홍효민

35) 『경기도사자료집』 제8권-해방시기,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5, 326쪽.
36) 「社說-建國途上의 地方文化運動」, 『문화일보』 1947. 3. 15.

2.3. 분단의 가시화와 문화의 전변

조선문학가동맹의 이러한 지부 설립과정과 비교할 때, 인천지역의 문학조직은 다른 곳보다 매우 빠르게 전개된 편이다. 이미 범좌파 문단의 통합조직인 조선문학가동맹과 비슷한 위상을 가진 인천문학동맹이 1945년 12월 18일 발족하였다는 점만 보더라고 그렇다. 인천 지역문단의 범좌파 문인조직을 대표하는 인천문학동맹은 결성과 함께 곧 기관지 발간 준비에 들어가 『인민문학』이란 제호 아래 늦어도 1946년 2월 초에 창간호를 내어놓을 계획이었다.[37] 『인민문학』이 전하지 않아 그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조선문학가동맹이 발족한 이후로 인천문학동맹은 조선문학가동맹 인천지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38]

1946년 1월에 인천문학동맹 소설부와 시부의 연합모임이 신포동 송종호의 집에서 개최되기도 하였고,[39] 문예탑사에 있던 사무실을 시내의 인천금융조합 2층으로 이전하였는데, 인천신문기자회와 월간잡지 월미사와 공동으로 사용케 되었다고 한다.[40] 1946년 2월에는 인천문학동맹 아동문학부에서 <동화의 밤>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41] 1946년 3월 31일에는 인천문학동맹 사무실에서 시내 각 초등학교 대표자를 비롯하여 여러 문화단체와 신문사 등의 대표가 모여서, 해방 후 최초로 맞이하게 될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위한 인천준비회 결성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인천교육자동맹, 인천음악협회, 인천음악동맹, 인형극연구회, 청년동맹소년부, 동극연구회, 인천문학동맹, 인천어린이회, 인천신문사, 대중일보사 등의 문화단체와 언론단체가 참여하였다.[42]

---

37) 「인천문학동맹 『인민문학』 준비중」, 『대중일보』 1945. 12. 21.
38) 해방기 인천 지역의 문화운동을 보도한 여러 신문에서 "인천문학동맹"과 함께 "문학가동맹 인천지부"를 혼용해서 보도하고 있음도 이를 방증한다.
39) 『대중일보』 1946. 1. 9.
40) 『대중일보』 1946. 1. 10.
41) 『중앙신문』 1946. 2. 16.
42) 『대중일보』 1946. 3. 31.

1946년 7월 28일에는 송학동 제2공회당에서 <강연과 시의 밤>을 개최하였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김기림, 오장환 등이 여기에 참석하였다. 조선문학가동맹의 주요 멤버였던 김기림, 오장환이 인천문학동맹 주최의 <강연과 시의 밤> 행사에 참여한 것을 보면, 이 시기 인천문학동맹은 '프로문맹' 계열에서 탈피하여 '문맹'의 노선을 따르는 인천지부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단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 1946年度는 기나긴 壓迫에서 解放된 人間情熱이 爆發되어 保守的인 舊藝術觀과 進取的인 新藝術觀이 無意識에 反立된 채로 行事라는 能動的 自己活動으로 自己肯定을 하여온 混沌期이다. (…) 玉石混在, 이것이 仁川藝術界의 現狀이다. 그러면 누가 眞實한 藝術家이며 누가 虛僞의 藝術家인가? 이 問題는 오로지 藝術家라고 自認하시는 여러분이 良心에 비추어 判斷하실 問題이다. 上述한 貧困性을 介在함에도 不拘하고 仁川藝術界는 多少의 收穫이 있었다. 다음 簡單하게 이것을 紹介한다. 于先 우리藝術館의 創設과 活動을 特筆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朝鮮 最初의 計劃이고 遠大한 朝鮮 藝術政策의 先驅가 되는 우리藝術館은 仁川의 자랑인 同時에 朝鮮의 자랑이다. (…)
>
> 이러한 市當局의 藝術政策과 아울러 在野 예술가들도 各自 藝術運動을 展開하고 文學界에서는 新藝術家協會, 仁川文學同盟, 前進同人會, 詩와散文同人會 等이 多彩로운 文學運動—機關誌 發行, 시의 밤, 壁詩展—을 展開하고 美術界에서는 內容에 있어 朝鮮 一流로 認定되는 藝術館 開館 主催로 '解放記念美術展'을 비롯하여 尹鳳淑 刺繡個人展 , 古書畵展, 朴性圭 個人展 第1回 全仁川 男女中等學校 美術展, 博物館 主催 第1回 全仁川 兒童美術展 等이 있었고 音樂界에서는 仁川音樂會 주최 全仁川 懸賞音樂大會, 水害救濟 音樂會가 있었고 基靑 主催 '貧民救濟의 音樂과 演劇의 날'이 擧行되고 또 乙酉俱樂部 主催의 音盤感想會가 2回나 開催되고 年末을 裝飾한 聖誕節에는 仁川가톨릭靑年會 主催로 서울가톨릭 聯合合唱團의 來仁으로 罹災民 救濟 音樂會가 있었다. 이외 街頭寫眞展, 演劇, 映畵 등 많은 活動이 있었다. 以上의 展望에서 얻은 結論은 仁川 藝術界의 活動은 전혀 今後의 課題고 良心的 藝術家의 努力에 依支하는 點이 多大하다는 것이다. 仁川 在住 여러 藝術家시여, 反省을 單純한 回顧로 하지 말고 自己批判에 까지 導入합시다.[43]

위 글은 1946년 인천 예술계를 회고한 미술평론가 이경성의 글이다. 이경성은 초대 인천박물관의 관장이기도 한데, "玉石混在"라는 말로 1946년 인천 예술계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개항기 인천에 최초로 세워진 영국 영사관 자리에 위치했던 '우리예술관'의 존재에 대해서는 오늘날 인천지역에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거니와, 문학, 미술, 음악 등에 걸쳐 다채로운 활동이 전개되었던 당시 인천 예술계의 동향을 간략하게나마 전해주고 있다. 문학계의 활동에 대하여 이경성은 "文學界에서는 新藝術家協會, 仁川文學同盟, 前進同人會, 詩와散文同人會 等이 多彩로운 文學運動—機關誌 發行, 시의 밤, 壁詩展—을 展開"한 사실을 열거하면서 구체적인 평가는 유보하고 있다. 인천시에게 임용하는 인천박물관의 관장이었던 이경성으로서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기술할 수밖에 없을 터이지만, "仁川在住 여러 藝術家시여, 反省을 單純한 回顧로 하지 말고 自己批判에 까지 導入합시다"라는 마지막 제언 속에는 인천 예술계의 예술적 깊이에 대한 아쉬움을 간접적으로 토로한 것일 터이다.

1947년 들어서 인천문학동맹은 더욱 정력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역사적인 3·1절 기념일을 맞아서 인천미술동인회, 문학가동맹 인천지부, 인천음악가동맹, 인천연극동맹 공동주최로 3·1기념 문화행사를 계획하였다.[44] 그러나 1947년 3월 16일 밤부터 문화관에서 개최한 <3·1기념 종합예술제>는 17일 낮 공연부터 인천경찰서에 의해 공연중지를 당하였다. 인천경찰서에서 허가한 흥행물은 연극 「하곡(夏穀)」[45] 한 편뿐임에도 불구하고 불온한 시낭송회 등 허가를 받지 않은 공연을 여러 차례 하였다는 것이 강제중단의 이유였다. 경찰청에서는 당장 흥행을 중지시키고 현장에 무장경관대까지 동원하여 경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CIC까지 현장에 출동하여 책임자인 김도인과 신윤양 등을 검속하였다.[46] 이 사건을 계기

43) 李慶成, 「1946年度 仁川藝術界의 回顧」, 『대중일보』 1947. 1. 1.
44) 「3·1기념 문화행사」, 『대중일보』 1947. 2. 16.
45) 「하곡」은 일제 말 함세덕이 발표했던 「감자와 쪽제비와 여교원」을 개작한 작품으로, 1946년 처음 중앙극장에서 상연하였다가 우익세력으로부터 수류탄의 세례까지 받았던 작품이었다.

로 하여 해방 직후부터 인천의 예술계를 주도했던 좌파 문화단체의 움직임은 급격히 위축되어 갔다.

1947년 10월항쟁이 발발한 이후로 미군정의 남로당 및 좌파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48년에 들어서는 남·북한의 단정수립과 함께 문화예술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1948년 인천 예술계를 이경성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今年의 仁川文化相을 回顧하여 볼 적에 意慾的으로나 施設的으로나 그리 큰 成果가 없었다는 것은 仁川의 鄕土文化 建設을 위하야 遺憾된 일이다. 施設的으로 보더라도 解放 後 朝鮮 最初의 試案인 藝術館이 創設되어 京鄕各地의 文化人에게 一大 跳躍을 招來한 것이 今年 들어 그의 建物을 無線電信局에 讓渡하야 그의 機能을 事實上 停止하고 있고, 또 體育 仁川의 中心인 體育公館마저 여러 가지 事情으로 度退되어 公會堂에다 房 한 칸을 얻어있는 現狀이고, 博物館, 圖書館 같은 文化機關도 財政難으로 그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치 못하고 있다. 다만 外國文化硏究館이 豊富한 그의 物的 基礎 위에 눈부신 活躍을 한 것이 歷歷하다. 다음 文化意慾的 面은 어떤가. 美術 部門은 전혀 不振 狀態에 있었다. (…) 文學 部門은 潛在的 意慾에 있어서는 가장 旺盛하면서도 몇 同人誌 發刊 以外는 이러타할 成果가 없었다. 音樂 部門은 現下 여러 가지 困難性에도 不拘하고 매우 活潑히 움직이었다. 特히 仁川交響樂團은 同人의 불타는 情熱과 努力으로 回를 따라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發展하니 이 땅의 音樂文化를 爲하야 기꺼운 일이다. 演劇, 映畵 部門은 몇 個의 跆作으로 謨利賣名을 일삼을 뿐 低俗한 世界를 彷徨하여 良心的 藝術的인 것은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다. (…) 以上이 槪觀的 仁川文化의 回顧이다.[47]

1947년 개관한 우리예술관이 당국에 의해 징발되어 무선전신국 건물로 사용된 데서 알 수 있듯이, 1948년은 이미 남·북의 단정수정과 분단의 가시화로 인하여 해방 초기의 문화적 활력을 잃고 말았다는 것을 위의 회고

46) 「종합예술제 중지, 미군 특무기관서 3명 검속」, 『대중일보』 1947. 3. 18.
47) 李慶成, 「戊子年 仁川文化의 回顧-施設 貧困과 意慾의 萎縮」, 『대중일보』 1949. 1. 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단 시설뿐만 아니라 각 부문 예술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학 부문에 대해서는 "文學 部門은 潛在的 意慾에 있어서는 가장 旺盛하면서도 몇 同人誌 發刊 以外는 이러타할 成果가 없었다"고 하여 정치적 외압이 압도하는 현실 속에서 문학의 창조적 의욕이 위축되었던 저간의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다.

3. 해방기 인천의 문학매체와 작품

3.1. 해방기 인천의 문학동인지

이상에서 살펴본 해방기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문화단체들은 다양한 기관지 매체를 발간하고 있었다. 인천신문화협회의 『신문화』는 물론이려니와 인천문학동맹의 기관지 『인민문학』, 인천신예술가협회의 『신예술』 같은 매체들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실물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된 『대중일보』에 수록된 일부 문학작품을 통해서 당시의 문학적 형상화의 수준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서지연구가인 노고수의 조사에 따르면 해방기에는 중앙이나 지역의 주요한 문학단체에 수렴되지 않는 다양한 문학동인회가 각 지역에서 모임을 갖고 동인지를 발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0년까지 확인된 문학동인회를 보면 아래와 같다.[48]

서울 : 『脈』동인회(1945), 詩塔동인회(1946), 藝術部落동인회(1946), 鄕土동인

48) 노고수, 『한국동인지팔십년사연구(1919-1990)』, 부산: 소문출판인쇄사, 1991 참조. 각 동인지의 발행년도에 있어 약간의 착오가 확인되었다. 인천의 소설전문동인지인 『해협』 창간호가 발간된 것은 1957년 3월 25일이다. 대전·충남 지역의 호서문학회와 전북 전주의 백탑동인회는 각각 1951년에 발행되었다고 송기섭, 최명표 선생이 지적해주었다.

회(1946), 酒幕동인회(1947), 同志社兒童園(1948), 形象동인회(1949), 대한교통동인회(1949)

인천 : 文藝塔동인회(1945), 詩와散文동인회(1946), 新詩學동인회(1950), 海峽동인회(1950)

대구 : 竹筍동인회(1946), 大陸문학회(1946), 戰友慶北支隊동인회(1950)

경남 : 진주 嶺南文學동인회(1946), 晉州詩人協會(1946), 年輪동인회(1950), 마산 靑葡萄동인회(1950)

대전·충남 : 詩會冬柏(1946), 湖西文學會(1947)

부산 : 흰구름동인회(1946), 後半紀동인회(1949),

전북 : 이리 秘色동인회(1946), 전주 白塔동인회(1950)

제주 : 新生동인회(1946), 黑珊瑚동인회(1950), 靈室泉동인회(1950)

광주·전남 : 靑春手帖동인회(1946), 젊은이동인회(1949), 多島海동인회(1949), 湖南文化동인회(1949), 零度동인회(1950), 목포 藝術文化동인회(1947)

경북 : 김천 梧桐詩文學俱樂部(1947), 영덕 土壁동인회(1950)

경기 안양 : 安養文學동인회(1947)

위의 지역별 동인회 명단은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것만 정리한 것일 뿐 이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은 동인회와 동인지들이 더 있을 것을 추정된다. 인천지역만 하더라도 '독서회 전진'에서 1945년 10월 중에 기관지 『무궁화』를 발간할 예정이라는 광고가 실렸다. 독서회 전진은 문학부뿐만 아니라 미술부, 사진부, 음악부 등을 두었는데, 기관지 『무궁화』의 주간은 이준식이 맡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까지 보도되었다.[49] '독서회 전진'은 발족 1주년 기념행사로 <시와 음악의 밤>을 1946년 10월 13일에 인천창영학교 강당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당일 낭송할 시집은 시내 각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날의 행사는 시 낭송과 함께 인천음악동맹의 공연이 함께 하였다고 보도되었다.[50]

전진 이외에도 위의 명단에 누락된 문학 동인회로 인천 활빈동지구락

49) 『대중일보』 1945. 10 18.

50) 「시와 음악의 밤, 전진동인회 1주년 기념 행사」, 『대중일보』 1946. 10. 9.

부의 활동이 역시 『대중일보』 지면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활빈동지구락부는 월간잡지 『활빈』 창간호를 1946년 1월 18일에 발간하여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활빈동지구락부에서는 비단 『활빈』뿐만이 아니라 『중학생신문』과 『소학생신문』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다. 이 단체는 1946년 2월 10일 창영학교 강당에서 <신인음악 콩쿨대회>를, 3월 중순에는 <전인천 중등학교 웅변대회>를, 4월 1일에는 <남조선 소학생 도시대항 미술전>을 개최키로 하였다고 하니,[51] 꽤나 의욕적인 문화단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37년 김도인에 의해서 발간되었던 향토종합월간지 『월미(月尾)』도 해방을 맞아 다시 김도인에 의해 복간이 추진되었다. 1937년 창간호이자 종간호가 되었던 『월미』를 보면 이 역시 문화동인지의 성격을 갖고 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월미』 복간호는 「투고환영」이라는 제목 아래 "시, 감상, 평론, 단편소설, 기타 문학작품과 미술, 음악 등의 일반 논문을 투고 환영"한다는 광고를 『대중일보』에 게재하였다.[52]

1946년 1월부터 김차영, 한상억 등이 문학동인회 결성준비에 착수, 표양문, 최태호, 함효영 등과 제휴하고 강춘길, 이태송, 최병욱 등이 가입하여 결성된 인천의 문학동호회 '시와 산문'은 모두 7집의 동인지를 발간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53] 1946년 『시와산문』 창간호를 내고 우리예술관에서 1호 발간 기념식 겸 파티를 개최하였다는 보도기사가 보인다.[54] 또 1949년 9월 24일 『대중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5호까지 발간했던 동인지 『시와 산문』이 그 동안 재정관계로 무기정간 중이던 바, 동인들의 열정으로 다시 속간호를 내게 되어 부내 축지활판소에서 즉시 간행물로 인쇄 중이었는데 25일 제본을 마치고 며칠 안으로 발매할 예정이라 하였다.[55] 마지막으로 발간된 7집은 46배판으로 인쇄되어 영창서관을 총판매점으로 하여

51) 「활빈동지 구락부(문학 동지자들 모임) 약진」, 『대중일보』 1946. 1. 25.
52) 『대중일보』 1945. 11. 19.
53) 신연수, 「인천문단의 어제와 오늘」 2, 『학산문학』 1993년 봄호, 52쪽.
54) 『대중일보』 1946. 8. 29.
55) 「『시와 산문』 속간호」, 『대중일보』 1947. 9. 24.

전국으로 인기리에 배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7집 모두 실물이 전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상의 문학 매체 중에서 『무궁화』와 『월미』가 실제로 발간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거니와, 창간호가 발간되어 호평을 받았다는 『활빈』이 앞서의 노고수 조사 동인지 명단에 누락된 것을 미루어볼 때, 상기의 명단 이외에도 각 지역에서는 꽤나 많은 문학매체들이 발간되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로 '문련' 경북도연맹에서 발간한 월간 『무궁화』는 1948년 7월호(통권 16호)를 비롯한 여러 호가 실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지역 문학동인회의 활동과 동인지 매체의 발간은 일찍이 식민지시대 각 지역에서 온축되기 시작하였던 지역문학 역량이 해방을 맞아 재생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56] 그러나 실물로 볼 수 있는 동인지가 그리 많지 않으니 아쉬울 뿐이다.

인천지역에서 발간한 동인지로 현재 그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50년 한국전쟁의 와중에 발간된 『草原』이다. 이 동인지는 시인 최병구를 비롯 최창섭, 이종범 등이 한국전쟁 전에 동인회를 경성하여 창간호를 발간한 듯하나, 현재 실물로 남아있는 제3호는 1952년 1월 3일에 발간된 것이다. 이 동인지의 발간은 이후 1950년대 인천의 대표적 문예지인 『인천문학』(인천문학동인회, 1956년 창간, 1984년 통권8권 발간)으로 이어졌다.[57]

3.2. 『대중일보』 소재의 문학작품들

이처럼 해방기 인천지역 문학단체의 기관지와 문학동인회의 동인지가 거의 멸실된 상태이기에 당시 지역문학의 문학적 수준이나 문제의식을 살피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재적 방법으로 인천지역에서 발간된 『대중일보』에 발표된 문학작품들을 살펴보는 수밖에는 없다.

---

56) 식민지시대 지역 문예지의 전사에 대해서는 졸고, 「지역 문예지의 오래된 꿈과 현실」, 『제주작가』 2008년 봄호 참조.

57) 신연수, 앞의 글, 53쪽.

우리의 政治, 經濟, 文化 모든 部面이 일직이 敵의 手中에서 歪曲되고 掠奪되고 抹殺되었던 것을 인제야 우리 손으로 낯낯이 奪還해 새로운 土臺 우에 建設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偉大한 任務가 우리의 두 어깨 우에 지여진 것이다. (…) 이러한 때 잇서 우리에게 許與된 言論의 自由는 모든 部面을 향해 積極的으로 進言하고 精力的으로 報道하지 아니하면 안될 絶對의 使命이 잇는 것이니 建國首途에 잇서 斬新潑剌한 報道와 嚴正公平한 批判이야말로 가장 基本的이오 가장 建設的인 事業이라고 아니할 수 업는 것이다. 하물며 仁川은 우리 首都의 關門이며 동시에 朝鮮産業의 心臟部인 만큼 對外的 交易이 이로조차 繁昌하고 國內的 生産이 여기에서 隆盛할 것이니 우리 國家의 成長과 함께 本紙도 갓치 成長하면서 오직 不偏不黨의 眞正한 言論의 使命을 다할 것을 우리는 滿天下 讀者에게 公約하는 바이다.

—『대중일보』 창간사[58]

우리 朝鮮의 西쪽 關門인 仁川港에 自由의 소리를 傳하는 新聞이 誕生함은 慶祝할 일입니다. 仁川港은 일즉이도 그리햇든 것이지만 새時代의 朝鮮이 海外諸國과 交涉하는 門戶가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貴新聞이 演해야 할 政治的, 文化的 役割은 자못 重大한 바가 있읍니다. 當然히 豫想할 수 있는 歐美文物의 輸入과 攝取에 있어 우리는 確乎한 批判의 基準을 갓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습니다. 이것은 우리 國家와 民衆의 將來에 關係되는 바가 至大하기 때문입니다. 頑固한 國粹主義도 배척해야 하지만 輕薄한 洋化主義는 더욱 警戒하지 아니하면 아니됩니다. 나는 仁川과 가튼 國際港의 言論機關이 自己에게 賦與된 自由를 爲先 이 方向에서 가장 有效하게 使用해 주기를 希望하는 한 사람입니다. 言論의 自由란 것은 決코 沒批判主義가 아닐 것입니다.

—임화, 「자유언론의 사명」[59]

첫 번째 인용문은 1945년 10월 7일 창간된 『대중일보』의 창간사이고 아래의 인용문은 임화의 창간축사이다. 두 글 모두 자유언론의 사명을 특히 강조하고 있거니와, 수도의 관문이자 국제항이며 산업도시로서 인천이 맡

58) 「創刊辭」, 『대중일보』 1945. 10. 7.
59) 임 화, 「自由言論의 使用」, 『대중일보』 1945. 10. 7.

아야 할 문화적 역할을 뚜렷이 표명하였다. "당초 『한민일보』의 제호로 발간하려 하였으나 형편에 의하야 본제호로 개제하였"다고 밝히면서 타블로이드판 2쪽으로 창간호를 낸 『대중일보』는 처음 얼마간은 타블로이드 1면만 발행되다가 곧 양면에서 4쪽으로 증면하면서 인천지역의 종합일간신문으로 발전하였는데,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꾸준히 간행된 신문이었다. 창간호에 창간축사로 임화의 「자유언론의 사용」을 싣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는 좌익적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가 1947년 무렵부터는 중립적 입장으로 변모하였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도 지역정보를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발간되었다. 이하에서는 해방기 인천의 언론상황에 대해 엄흥섭의 행적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대중일보』의 초대 편집장은 소설가 엄흥섭이 맡았다. 엄흥섭은 같은 해 11월 28일에 결성된 인천신문기자회의 위원장직도 겸직하였을 뿐만 아니라,[60] 12월 18일 발족한 인천문학동맹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인천문화계와 언론계의 핵심적인 인물로 자리하였다. 그러나 엄흥섭은 1946년 3월 1일자로 새로 창간된 『인천신문』의 초대 편집국장으로 자리를 이동한다.[61] 『대중일보』 편집국 엄흥섭 국장 이하 전 사원이 경영주 측과 의견이 맞지 않아 15일 총사직을 결의하게 되어 『대중일보』는 부득이 휴간하게 되었다.[62] 대중일보사를 그만둔 엄흥섭 등은 동인제로 운영하는 신문을 3월 1일자로 창간하고자 '사단법인 인천신문'을 설립하였다.[63] 인천의 문화인들이 동인제로 키워가자며 창간한 『인천신문』은 특이하게도 발행인을 두지

60) 「전투적 언론진 구축, 인천신문기자회 결성대회」, 『대중일보』 1945. 11. 30.

61) 한편 『인천신문』 창간 직후인 1946년 4월 1일자 『서울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엄흥섭이 새로 창간되는 문학 전문지인 주간 『문학신문』의 편집장을 맡을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실제로 이 보도 직후 1946년 4월 6일자로 『문학신문』 창간호가 서울시 중구 장곡천정(長谷川町) 문학신문사에서 간행되었다. 엄흥섭이 편집장이고 주간은 홍효민(洪曉民), 주필은 이북만(李北滿)이 맡았다. 『문학신문』 창간호(전4쪽)의 영인본과 이에 대한 간략한 해제는 『인하어문연구』 제6호(인하대 국어국문학과, 2003)에 수록되어 있다.

62) 『중앙신문』 1946. 1. 18.

63) 『중앙신문』 1946. 2. 23.

않고 위원장을 두었는데 그 자리를 김수영(金壽永)이 맡고, 편집국장은 엄홍섭, 총무국장 겸 정치부장 손계언(孫啓彦), 사회부장 이원창, 편집부장 김도인, 문화부장 윤기홍, 서무경리부장 이경연, 총무부장 이희영, 출판부장 김수근 등이다. 이 신문의 논설위원으로 이원조, 김남천, 박치우 등의 참여한 것도 이채롭거니와 『인천신문』은 『대중일보』보다 더 뚜렷하게 좌파적 색채를 분명히 하였다.[64]

이러한 논조 때문에 『인천신문』은 창간된 직후에 곧 필화사건을 겪는다. 1946년 3월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자 좌파언론들이 공위를 지지하면서 미군정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신랄하게 개진하자 미군정 당국에서 좌파 언론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 첫 케이스가 『인천신문』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인천신문』의 실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은 알기 어렵지만, 인천시청 적산과장에 대한 『인천신문』의 보도가 허위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이라 이유를 들어 『인천신문』에 대한 미군정 당국의 탄압이 대규모 구속사태를 낳게 된 것이다. 해당 기자와 인천신문사의 공무직원 및 서울특파원 등 무려 40여 명을 구속하고 그 중 간부들을 미군정재판에 넘겨 벌금형을 언도하였다.[65] 위원장과 총무국장이 각각 징역 1개년에 벌금 1만5천 원을 선고 받았고, 편집국장 엄홍섭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와 벌금 5천 원이 언도되었다.[66] 이후 『인천신문』에서 1년 4개월을 근무한 엄홍섭은 이 신문의 취체역(取締役)으로 있던 윤규남(尹圭南)이 서울의 제일신문사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 된 후 그의 제의에 따라 1947년 7월 25일자로 『제일신문』 편집국장으로 자리를 옮겨갔다.[67]

---

64) 송건호, 「미군정시대의 언론과 그 이데올로기」, 『한국사회연구』 2, 한길사, 1985, 523쪽.

65) 같은 글, 545쪽.

66) 「벌금형 언도, 인천신문사 사건」, 『동아일보』, 1946. 5. 20.

67) 창간 이후 『제일신문』은 강한 좌익성향의 기사와 논조를 지속하였고 엄홍섭이 편집국장으로 간 뒤인 1948년에 가서도 그 논조는 지속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 신문 역시 필화사건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이희환, 「엄홍섭과 인천에서의 문화운동」 참조.

이러한 언론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간된 지역 종합신문인 『대중일보』는 해방기 인천의 매체를 대표한다. 『대중일보』에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간헐적으로 문학작품을 수록하였다. 『인천신문』도 문학작품을 수록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현재 『인천신문』이 남아 있지 않기에 『대중일보』에 발표된 문학작품을 통해서 인천 지역문단의 문학적 성과를 검토해볼 수밖에 없다.[68]

1945년 10월 7일 창간호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1950년 5월 30일 1,467호를 발간한 뒤 중단되기까지 대략 4년 반의 기간 동안 『대중일보』에는 그리 많은 문학작품이 수록되지는 않았다. 시가 20편 정도 수록되었고 연재소설이 두 번 게재되었으며, 그 외 소설과 수필 몇 편이 발표되었다.

十一月 二十日!
이 나라에 처음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렸다.
會場入口엔 淸楚한 설문가지가 섯고
群衆은 潮水같이 밀려들어
整理員의 高聲이
자못 橫暴하기도 하다.

各 地方의 民意를 걸머진 六百五十代表
그들의 눈은 숫불같이 탄다
鎔鑛爐속같은, 海底와 같은
갑분呼吸이 數千名의 血管을 通하야
銅鐵이라도 꿰뚫을 鬪志가 滿堂에 서렷다.

地球의 아들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집을 지었고
歷史가 뵈여주는 指針을 向해
함마를 들은 팔에는

68) 이하 『대중일보』 소재 문학작품에 대해서는 안정헌, 「대중일보 소재 문학연구」, 『인천학연구』 2-1, 2003 참조.

지렁이같은 脈管이 벌누거린다.

한번 터지니 瀑布水되여
40년의 鬱憤이 끝일길있으랴
木枕을 고이고 죽엄을 무릅쓰나니
나는 보았다-----
正義의 火光에는 太陽도 시새임을

'呼訴, 絶叫, 感涙'
'拍手, 熱狂, 熱狂' 咸鏡, 平安, 黃海, 江原
京畿, 慶尙, 全羅
등에다 匕首를 품은 者들이여.
어찌 이들의 부르지즘을 못듯는가.
人民의 배 어혀 듸여
共和의 배 어혀 듸여 (11. 25)

—윤기홍, 「인민의 소리」 전문[69]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내는 말"이라는 부제가 붙은 위의 시는 인천문학동맹의 부위원장인 윤기홍의 시이다. 해방 직후의 역사적인 상황을 "함마"와 "폭포수" 그리고 "正義의 火光"으로 표현한 데서 알 수 있듯, 억눌렸던 식민지의 질곡에서 벗어나 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는 인민대표들의 투지와 열정을 격정적인 어조로 노래한 시다. 그러나 해방된 조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인민대표자회의에 거는 역사적 기대와 흥분이 시적인 긴장을 압도하여 거친 관념어와 영탄조로 표현되어 있다. 한편 윤기홍이 12월 10일자에 발표한 「初雪」은 「인민의 소리」보다는 한층 서정적이다. "조심스런 새각씨 벌거름처럼 / 옷자락날니며 地角을 어르만지는 첫눈"의 부드러운 촉감은 "새아들 새손자 아룩할 포근한 요포대기속에 / 고단한 나그네旅裝이 平和의꿈을 꾸는 한밤"으로 푸근하게 젖어든다.

---

69) 『대중일보』, 1945. 11. 30.

윤기홍과 함께 인천문학동맹의 집행위원이었던 송종호와 김차영은 각기 다음과 같은 시를 발표하였다.

希望이 海溢처럼 넘치드는
새아츰 떠오르는 햇발을 안고
저기 한폭 깃발이 휘날니나니
오 太陽같이 尊嚴한 모습이여
바닭이같이 平和스런 손길이여

—송종호, 「새아츰」 부분[70]

우러러 섬기자는 별빛이 하나
손을 대이면 시리울 듯
記憶이 女人을 찾는 사연인가 시퍼
싸늘한 마음의 이슬인가 시퍼

차디찬 감촉으로 結晶된 꿈의 破片들이여
전설이 문허질 듯 왼 하늘에
금기야 砂金의 사태가 난다.

—김차영, 「별」 부분[71]

송종호의 시 또한 앞에 인용한 시들과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 처음 맞이하는 새해를 맞아 그 첫 아침처럼 해일 같이 벅찬 희망과 태양 같은 존엄함으로 조국의 미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윤기홍과 송종호의 시에서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방직후의 벅찬 감격과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원이 『대중일보』에 수록된 시편들 전반에는 농후하게 드러난다. 박속(朴速) 시인의 「크리스마스頌—미군장병에게 올림」(1945. 12. 24)이나 표기해의 「祖國의 太陽—朝鮮青年奮起之秋」(1946. 10. 10)는 이를 산문적 어투를 빌어 직정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두 번째로

70) 『대중일보』 1946. 1. 5.
71) 『대중일보』 1946. 9. 23.

인용한 김차영의 시 「별」은 좀 다르다. 감정이 절제된 바탕 위에서 별이 주는 차가운 감촉과 이미지를 파고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에는 그 어떤 산문적 현실이 읽히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김차영이 훗날 '시와산문', '후반기' 동인으로 참여하면서 모더니즘 시운동에 가담하였던 정서적 내력을 엿볼 수 있다.

해방 초기의 벅찬 기대와 감격도 식어가던 1946년 중반에 이르러 『대중일보』 게재 시들에는 감격과 희망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다시 분열과 고통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시의 어조들도 달라진다. 그 가운데 가장 빼어난 시적 성취를 보여주는 두 편의 시를 보자.

祖國이 解放되었다는
歡喜의 消息을
　　가삼에 안고
山넘고바다건너
　　國境넘어서
내 故鄕그리운 故鄕에
차저왓것만
집없고 버리없는
　　戰災民身勢
오날도 埠頭에
　　쪼그리고 안저
飢寒과 頓悶에
　　하로해지네.

—함효영, 「戰災民의 悲歌」 부분[72]

이제 第七次 歸還船에서 강냉이밥을 먹어야하든 순이는
撤去命令의딱지 부터있는 假建築物앙상한 굴둑뒤에서
氣盡한 鄕愁를 더듬어야할 법은 없겠습니다.

—일석, 「순이」 부분[73]

72) 『대중일보』, 1946. 12. 17.

마치 이야기시를 읽는 것처럼 애절하게 그려낸 이 두 편의 시는, 해외의 전재민동포가 대거 입국하는 항구였던 인천의 역사적 현장을 목도하고 쓴 시일 것이다. 거친 관념과 공허한 감상을 벗어나서 인천항에서 목도하는 민초들의 궁벽한 심정을 헤아리는 시적주체의 절제된 시선이 차분한 어조로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해방 직후의 시는 전반적으로 생경하여 그 시적 수준이 그리 높지 않지만 1946년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 비교적 시적 성취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대중일보』에 게재된 산문들은 문학적 수준이 그리 충실치 못하다. 대중일보에 소설을 가장 많이 발표한 작가는 인천문학동맹의 집행위원이자 『월미』의 편집인인 김도인이다. 그는 1945년 11월 10일자에 「말다툼」이라는 소년소설을 발표한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역사소설 『三不堂』을 연재할 예정이라 광고되었다. 1948년 8월 25일자에는 수필 「夏雲 多奇峰」이라는 수필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해방 직후 치안대에 의한 질서유지와 준법정신을 강조한 「말다툼」도 소박하지만, 『대중일보』에 본격 연재한 『삼불당』은 1부 32회를 연재하고 나서 2부 5회까지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말았다. 고전소설의 구투를 벗어나지 못한 작품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대중일보』 1946년 2월 28일부터 24회에 걸쳐서 김경준이 맥키니 작 『자유의 일년』을 번역하여 연재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작품의 완성을 기하지 못하고 연재가 중단되고 만다. 또한 작고문인 최병준의 유고소설 「유몽도」가 실리기도 하였으나 어쩐 일인지 이 또한 완결되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만다. 당시의 현실에서 그것도 지역 일간신문에 완성도 높은 소설작품을 수록하기에는 해방 직후의 현실이 너무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소설적 성숙을 기하기에도 너무 짧았던 탓이었으리라.

---

73) 『대중일보』 1948. 8. 22.

4. 결론에 대신하여

1949년 후반 인천지역의 문학적 상황은 크게 위축된다. 문학가동맹 인천지부의 소설부장이었던 송종호가 8월 8일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에 피검되어 문초를 받고, 12일 검찰에 송청되는 사건이 일어났다.[74] 1950년 들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간섭과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인천시 학무과 문화계에서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시내에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대하여 1950년 2월 4일까지 전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음악, 미술, 무용, 문학, 연극, 영화 등에 종사하는 모든 예술가들과 단체들을 조사하여 명부에 올리고 감시하려 했던 것이다.[75]

인천문학동맹의 위원장이었던 엄흥섭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된 것은 출옥 직후인 1949년 11월 30일의 일이다. 좌익성향의 인사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직인 국민보도연맹에 정지용, 정인택, 박로아 등과 함께 엄흥섭이 자진 가맹하였다고 당시 신문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1950년 1월 8-9일 동안 서울시 공보관에서 정지용의 사회로 진행된 국민보도연맹 주최 제1회 국민예술제전에 나가 엄흥섭은 그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강연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76]

해방 초기 좌파 주도로 전개되었던 인천 문화예술계의 구도가 역전된 것은 이미 바로 1948년 8-9월 남북한 단정 수립 이후부터였다. 1949년 8월에 인천예술인협회가 결성은 극단적인 이념을 두고 대치했던 남·북 분단정권의 수립 아래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남한 정부의 이데올로기라는 우산 아래 제도화되는 과정을 상징한다. 인천예술인협회는 화가 우문국을 중심으로 결성 움직임이 가시화되어, 1949년 8월 6일에 송학동 외국문화연구관에서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사진 등 각 부문에 걸쳐 40여 명의 인천 예술인이 참여

---

74) 『대중일보』 1949. 8. 13.
75) 『대중일보』 1950. 1. 21.
76) 「국민보도연맹, 제1회 국민예술제전」, 『서울신문』 1950. 1. 9.

하였는데,[77] 회장에는 김성국, 부회장에는 표양문, 박영희 등이 선임되었다.[78] 표양문은 초대 인천시장을 역임한 인물이거니와, 인천문학동맹에 참여했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월북한 이후 관제화되어 가는 지역문화예술의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950년 4월 15일부터 인천예술인협회 문학분과위원회 소속 시인들의 벽시전람회를 신생동 낙랑다방에서 개최하였다. 여기에 작품을 출품한 시인으로는 월남한 시인 이인석과 함께 조병화, 조상억 등이 참여하였고, 인천문학동맹의 서기장이었던 김차영 시인도 작품을 출품하였다.[79] 그러나 인천예술인협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인 조직으로 탄생한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결성되자 곧 해산하고, 1950년 6월 12일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지부('인천문총')가 창립되었다. 그러나 인천문총이 창립된 직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제대로 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그 대신에 '인천문총 구국대'를 조직하여 1951년 1·4후퇴 때까지 멸공문화인총궐기대회, 시국대강연회, 멸공작품연재, 가두반공서화전시, 멸공표어가두전시, 연합군묘지참배, 멸공벽시전 같은 전시예술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구국대는 1951년 12월 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해산하고 '인천문총'의 기능의 정상화하면서 분단시대를 맞게 되었다.[80]

이상에서 해방기에서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인천지역의 문단 상황과 조직, 그리고 문학매체와 지역문학 작품의 일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해방기 인천지역 문학의 상황에 대하여 주로 『대중일보』에 의지하여 실증적 차원의 복원에 머물렀고 또 다른 지역의 해방기 지역문학사와의 비교검토를 다루지 못해 인천 지역문학이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깊이 있기 검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제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작업에 그쳤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진한

77) 「인천예술인협회, 내일 결성대회를 거행」, 『대중일보』 1949. 8. 5.
78) 「예술인협회 결성회 성대」, 『대중일보』 1949. 8. 9.
79) 「벽시전 개최」, 『대중일보』 1950. 4. 16.
80) 『경기도사자료집』 제8권-해방시기, 327쪽.

대로 해방기 인천 지역문학 연구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학사적 의미와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해방기 인천 지역문학은 중앙의 문단상황과 깊이 연관되면서도 인천 지역 나름의 정치적, 지역적 상황 속에서 독자적인 문학적인 움직임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는 범좌파 문단조직을 대표하는 조선문학가동맹보다도 이른 시기에 인천지역의 범좌파 문학조직을 대표하는 인천문학동맹이 결성되어 활발한 지역 문학운동을 전개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이 중앙-서울과 가장 인접한 인천에서도 확인되는 만큼 중앙에서 멀리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한층 독자적인 지역문학의 장과 조직을 형성하면서 전개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타 지역 문학사와의 비교연구가 향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인천지역의 문학조직과 매체,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작가들의 면모는 서울 중심의 중앙문단만을 연구했을 때는 접하지 못했던 많은 조직과 매체, 그리고 신진작가들의 활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해방 후 최대의 문학조직인 조선문학가동맹조차 지부조직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우파의 대립이라는 양분법적 시각으로 재단되지 않은 다양한 지역 문화단체들이 지역에서 발화하고 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좀 더 주의 깊은 연구가 필요할 듯 싶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이 활동했던 조직과 매체를 증거해줄 자료와 매체가 전하지 않고 『대중일보』와 같은 지역신문매체의 보도에 의해 부분적으로 확인되는 실정이니 아쉬울 뿐이다. 앞으로 지역문학 매체들이 속속 발굴, 정리된다면 보다 풍성한 지역문학의 실상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 해방기 한국문학사의 풍부한 지층이 밝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해방기 인천지역의 지역문학과 매체가 자못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기의 역사적 과제를 둘러싸고 야기된 중앙에서의 좌우 대립과 분단 정권의 수립으로 인한 분단체제의 형성은 지역문학에도 그대로 전이되었다. 해방 직후 인천 지역에서 지역문화운동의 우이를 쥐었던 좌파 계열

의 문학단체들이 1947년 하반기 이후로는 그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1948년 남·북한 분단정권의 수립으로 지역문학의 해체와 함께 분단체제로의 문학적 재편이 강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시기를 달리하여 특히 한국전쟁기의 지역문학의 존재양상을 중심에 놓고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반공주의로 문학적 기반을 닦은 남한의 지역 문예조직과 문단은 이후 중앙의 강력한 통제 아래 향토주의 미학과 결합하면서 반국적 '국민문학' 체제에 편승, 온존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남한의 반국적 '국민문학'이 형성되는 역사적, 미학적 기원에 대한 연구를 다음의 과제로 남긴다.

● 핵심어: 지역문학, 인천, 해방기, 문학매체, 대중일보, 엄흥섭, 조선문학가동맹, 동인지

<참고 문헌>

1. 기초자료

『대중일보』, 『현대일보』, 『중외신보』, 『일간예술통신』, 『문화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인민보』, 『중앙신문』, 『신조선보』

임 화, 「문학상의 지방주의 문제」, 『조광』 1936. 10.

『文學』 창간호, 조선문학가동맹, 1946. 7.

이약슬, 「反動派와 싸우는 仁川의 文化運動」, 『文化通信』 2권 1호, 조선정판사, 1946. 1.

조선문학가동맹 엮음, 『건설기의 조선문학』, 최원식 해제, 온누리, 1988.

『경기도사자료집』 제8권-해방시기,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5.

2. 참고자료

김재용, 「분단구조하의 남북 중심주의와 민족문학의 전망」, 『20세기 한국문학의 반성과 쟁점』, 소명출판, 1999, 91-101쪽.

김정훈, 「남북한 지배담론의 민족주의의 비교 연구—역사적 전개와 동질이형성」,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99.

노고수, 『한국동인지팔십년사연구(1919-1990)』, 부산: 소문출판인쇄사, 1991.

백낙청, 「'통일시대'의 한국문학」, 『한국현대문학 50년』, 민음사, 1995.

송건호, 「미군정시대의 언론과 그 이데올로기」, 『한국사회연구』 2, 한길사, 1985.

신연수, 「인천문단의 어제와 오늘」 2, 『학산문학』 1993년 봄호.

안정헌, 「대중일보 소재 문학연구」, 『인천학연구』 2-1, 인천학연구원, 2003, 313-340쪽.

윤영천, 「배인철의 흑인시에 대하여」, 『창작과비평』 1989년 봄호.

이희환, 「『월미』와 김도인」, 『인천문화를 찾아서』, 인천: 다인아트, 2003, 206-208쪽.

이희환, 「인천 근대연극사 연구 1883-1950」, 『인천학연구』 5호, 인천학연구원, 2006, 63-122쪽.

이희환, 「김동리와 남한 '국민문학'의 형성」, 인하대 박사논문, 2007.

이희환, 「지역 문예지의 오래된 꿈과 현실」, 『제주작가』 2008년 봄호.

이희환, 「엄흥섭과 인천에서의 문화운동」, 『인천아, 너는 엇더한 도시?—근대도시 인천의 역사·문화·공간』, 역락, 2008, 355-388쪽.

최원식, 「지방을 보는 눈」, 『황해에 부는 바람』, 인천: 다인아트, 2000, 27-40쪽.

최장집, 「국민국가의 형성과 근대화의 문제 1945-1961」,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6.

<Abstract>

Regional Literature and Sociology of Media at Incheon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Lee Hee-hwan

Regional literature is the concrete field of the Korea Literature. The research literature of each regional literature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is very important task that is to explore the origins of half-national 'national literature'.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of the Incheon region cultural organizations that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entral cultural institutions have been formed. Incheon-Sinmunhwa-Hyuphoe and Incheon-sinyesulga-Hyuphoe was born at that time. Two organizations was incorporated in Incheon-Munhak-Dongmaeng. Incheon-Munhak-Dongmaeng was the role of Incheon branch of Chosun-Munhakga-Dongmaeng. Incheon-Munhak-Dongmaeng deployed variety of activities until 1947 ago. However, Incheon-Munhak-Dongmaeng had been shrinking its activities in division situation. Except for Incheon-Munhak-Dongmaeng, the various literary groups and literary coteries were active in Incheon. But these organizations published literary media and coterie magazines that was not currently almost left. So this time, the face of Incheon's regional literature can look through the DaeJung-Ilbo which was published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The Daejung-Ilbo's the chief editor was Eum Heung-seop who was novelist and chairman of Incheon-Munhak-Dongmaeng. However, there was just not that many printed literary works. Rather than mere a few fiction and essays, was

better poems about 20 pieces. That poems was trying to describe the realities of contemporary. But Incheon's regional literature was redrawn along with the anticommunism under the division system since 1949.

• Key words: Regional Literature, Incheon, Liberation Period, Media, Daejung-Ilbo, Eum Heung-seop, Chosun-Munhakga -Dongmaeng, Coterie magazine

* 이 논문은 2010년 1월 23일 투고되었고, 2월 16일 심사 완료되어 2월 1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